

대구주노

예수 성탄 대축일
2012.12.25.(다해) | 제1815호



구세주의 탄생 <게르트겐 토트 신티 안스, 목판에 유채, 1490년경. 런던 국립박물관 소장>



2012년 교구장 성탄 메시지

가난한 이들 가운데 계신 주님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죄를 빼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기를 원하신 주님께서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떠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못난 우리가 보살펴드리고 안아드릴 수 있도록 힘없고 작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추운 계절인데도 성탄을 맞아 절로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이토록 먼 거리를 내려오신 주님의 겸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안보와 민생, 교육과 복지의 얽히고설킨 문제들을 둘러싸고 갖가지 논란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와중에 경기가 위축되고 일자리도 줄어들어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금세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밖으로부터는 전쟁과 재난의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며칠 전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라 살림을 맡아 일할 새 대통령도 뽑았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저무는 해를 보내지만 우리 주변에는 희망을 걸어볼 만한 여지조차 없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치의 쇄신이나 경제의 민주화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제도상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랑입니다. 스쳐지나가는 관심이나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랑, 멀리 떨어져서 대책을 논의하는 도움보다는 찾아가서 함께 있어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아도는 것을 나누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을 뿐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사셨습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하신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진실입니다. 가장 크신 분께서 작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셨으니, 주님의 제자 된 우리는 마땅히 작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며, 힘들어하는 이웃을 볼 때마다 바로 주님을 뵙는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선의 정신이며,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처음 오실 때에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서는 이 성탄절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추운 겨울에 방을 얻지 못해 한 데서 태어나신 분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5)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은총 가득한 이때에 주님께서 모든 교우들에게 참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나서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2012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 타대오 대주교

†. 3월 25일 타대오



구유를 둘러싼 성인들

예수 성탄 대축일 이후 일주일 간은 '성탄팔부'라고 불리는데 이 주간에는 주님을 증거한 첫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과 주님의 사랑을 받으신 제자이며 십자가 곁에 끝까지 함께 계셨던 복음사가 사도 요한 성인,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말씀을 위해 목숨을 빼앗긴 베들레헴의 무죄한 아기들을 기념합니다.



성 스테파노(12월 26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던 시절에 살았으며 사도들이 뽑은 최초의 부제이자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이신 스테파노 성인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뿐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진리를 증언하는데 힘쓰셨다. 성인께서는 특히 성령이 가득한 설교로 유명하셨는데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일 때마다 지혜로운 언변으로 그들을 물리치셨다. 이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결국 성인께서는 돌에 맞아 순교하심으로써 (사도행전 7장)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해에 순교하심으로써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셨다.

사도 성 요한(12월 27일)

어부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뽑힌 요한 성인께서는 제베대오의 아들이자 야고보 사도의 동생이시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된다. 예수님 생애의 주요 사건에 많이 동참하셨는데 특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기셨다. 성인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한 탓으로 파트모스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에페소로 돌아가 그곳에서 선종하셨다. 파트모스섬에서는〈요한 묵시록〉을, 에페소에서는〈요한 복음〉과 세편의 서한을 쓰셨다고 전해진다. 요한 사도는 흔히 독수리로 상징된다.





I 금주의 성화

구세주의 탄생

〈게르트겐 토트 신트 안스, 목판에 유채,
1490년경. 런던 국립박물관 소장〉

게르트겐은 근대적인 명암과 투시법을 사용하여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법을 담은 이 성탄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오늘날 이 그림은 회화 기법 때문이 아니라 그림에 담긴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성모님을 위시한 모든 등장인물들의 얼굴과 몸짓은 깊은 관상에 잠겨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심지어 소들도 의미심장한 표정을 하고 있다. 아기 예수님에게서 뿜어 나오는 빛이 그림 전체의 유일한 광원이며, 이 빛이 예수님을 둘러싼 이들을 비추고 있다.

†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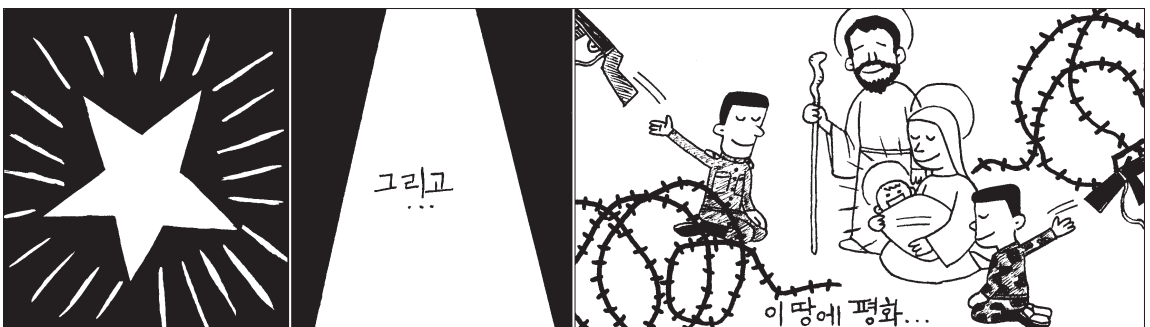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천사가 일러 준 대로 이것은 더 할 수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하느님의 겸손 앞에서 착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화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탄 대축일 밤 미사 _ 제1독서 : 이사 9,1-6 제2독서 : 티토 2,11-14 복음 : 루카 2,1-14

성탄 대축일 낮 미사 _ 제1독서 : 이사 52,7-10 제2독서 : 히브 1,1-6 복음 : 요한 1,1-18

하늘의 영광

박성규 엘리지오





크리스마스의 기적

1914년 12월 24일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참혹한 1차 대전이 휩쓸고 간 서부전선에는 그 눈과 함께 오랜만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독일군 참호에서는 별안간 크리스마스 캐럴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이를 들은 영국군들은 스코틀랜드 풍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의 반주를 넣어주거나 독일군의 노래가 끝났을 때 자신들도 영어로 된 크리스마스 캐럴로 응수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914년 12월 25일 유럽을 관통하는 긴 서부전선에서는 연합군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나무를 보게 됩니다. 푸른 나뭇잎들 사이에 오색으로 치장한 크리스마스 장식품이 걸린 <크리스마스 트리>였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엔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트리의 존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전선 한 가운데로 트리를 가지고 걸어 나오는 독일군 병사들을 보

며 적잖이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이 무장을 풀고 무인지대로 걸어 나왔으며 그 뒤를 부하들이 뒤따랐습니다. 행하니 뚫린 무인지대에서 그들을 거리끼게 할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말리는 지휘부도 없었고 지휘부에서 말하는 <적국의 군인들은 악마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적병들은 인간적으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무인지대의 시체를 수습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커피를 마시며, 축구도 하고 서로의 덤수룩한 머리를 정돈해 주었습니다. 헤어지는 길에 그들은 서로의 증표를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군복을 바꿔 입기도 했고 철모를 바꿔 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대로 전쟁이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를 안 지휘부는 노발대발했으며 심지어 크리스마스 휴전에 참전한 모든 장교들을 처벌했습니다. 형제가 되었던 그들은 다시 총기를 겨눴고 총을 겨누는 그들은 서로의 참호로 다시 돌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전쟁은 4년간 지속되었고 1,000만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였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친구처럼 지냈던 이 이야기를 훗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영국군 병사의 일기에는 ‘도저히 저 착한 사람들(독일군)들이 우리와 총을 겨누고 싸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5천년 인류 역사 중 92% 동안은 전쟁 중이었고 단 8%만이 평화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를!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이.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예수 성탄 대축일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화답송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 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피정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5(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천상의 어머니와
우리 가정의 축복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대구307차: 1.25(금)~27(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2박3일 성령세미나

기간: 1.25(금)~27(일), 월막피정의집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신청: (054)954-0951

교육 | 모집

1대리구 초등학교 편입보육원 모집

일시: 1.10~24 (매주 목요일)

9:30~12:30 / 총 3회

내용: 초등학교 자원봉사프로그램

대상: 초3~6, 회비: 5천 원

장소: 1대리구청, 426-7212

24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일시: 1.19~(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

신청비: 15만 원 / 문의: 641-5678

노틀담오르프 단기 지도자 과정

기간: 1.7(월)~9(수) 9:00~18:00

장소: 상인동 소화 어린이집

문의: (010)7392-1227

(010)9034-4911

대구가톨릭대학교 2013 편입학 모집

교과부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 달

성, 2014 개교 100년을 맞는 전통의

명문대학, 의/약/보건/생명과학 분야

특성화 대학

일반편입 186명, 학사편입 157명 모집

접수: 1.3(목)~8(화)

문의: 850-2580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

(경영, 디자인, 신학, 보건의료, 사회
복지, 음악, 국제·다문화)

접수기간: 1.3(목)~10(목)

문의: 850-3637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

<http://www.holycac.or.kr>

12.25(화) 14:00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회 월례미사는 성탄 대축일 관
계로 없습니다.

2013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 3074

미사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4일(월) 오전 11시	계산주교좌성당
김천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26일(수) 오후 7시	김천황금성당
대구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27일(목) 오후 7시	성모당 또는 대화합실
공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9일(토) 오전 11시	남산성당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노블코리아
미혼 남녀의 백년가약! 결혼
미팅횟수 채움이 아닌 성혼에 주력!
상담수료증 이수자인 사회복지사가 상담함.
053)639-8998 박영주(젤마) 박요안나
상인점 홀플러스 맞은편 / 범어동 경신고 입구

전통한복의 명가 대한민국 한복명장
이명자 한복방
· 혼수/예단/수의 · 한산모시 전문점
중구 반월당 삼정그린코아 상가 115호
☎ (053)421-2827/421-2828
이명자(세일러), 강윤정(아네스)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광안신임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박사/원장 신재훈(루카), 광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맞은편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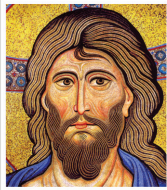
백두정형외과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억두(아오싱) 배상근(베드로)
소아청소년과/산생아세부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키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동인치안센터 건너편

창정재주의 신선한 유기농우유
성이시들 목장우유
제주우유 (대리점모집)
유기농우유, 저지방우유, 제주초지방목우유
대구총판매점 대표
최준하(바오로), 박창완(마리아)
☎ (053)426-3300 www.jejumilk.kr

SM **수맥흠침대**
불면증, 허리통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1588-5335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야뇨증/성정장애 · 감기풀임
“먹기 좋은 달기맛 종류환약”
한 의 학 박 사
현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 성 철(비오)
☎ (053)592-1275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2012
2013

‘신앙의 해’ 기념 신앙수기 공모전



1.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4.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contest.daegu.jubo.or.kr>)
5. 출품내용
가. 사진 파일 (컬러·흑백 모두 가능)
나.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한 한글 파일
_ 이 사진에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경위나 이유
_ 피사체에 대한 설명
_ 출품인의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
6. 문 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8, 3074

1. 공모주제 :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체험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3. 1. 1.(화) ~ 13. 2. 28.(목)
4.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5~20매
A4용지 2~3매
(한글 10포인트 기준)
5. 출품방법 : 월간 <빛> 홈페이지
(<http://www.lightzine.co.kr>)
신앙수기 공모 코너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6. 문 의 : 교구 월간 <빛> 편집부
(053) 255-8405, 250-3157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6인 진료 **765-3771**

심장·순환기, 소화기·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영섭(베드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들안길 네거리 ~ 왕곡성당 사이



장 윤 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와 임상교수
원 장 장 윤 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ME 6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 · 여드름 · 레이저 · 모발이식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 566-4333



백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15년 경력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9.04 매달신문 인터넷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http://www.leestory.kr>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리스토리결혼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멋진인생 에스 테틱 두피센터

SkinCare / Body / Scalp 탈모두피

지점) 남구, 대곡, 동호, 두류, 만촌, 범어, 산격
서면, 상서, 시지, 칠곡3지구, 침산, 구미롯데

상담예약 **1588.8850**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